

지역 매아리

고창군, 바닥 표지판 설치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길을 걷는 이른바 '스몸비(스마트폰+좀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고창군이 바닥 표지판을 설치했다.

6일 고창군에 따르면 새하기를 맞아 관내 학교 주변 교차로에 스마트폰 사용금지 노면 표지판 설치를 완료했다.

이는 스마트폰을 보느라 바닥을 보는 일이 많은 청소년들이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신호를 기다리도록 유도한다. 무의식중에 자신도 모르게 차가 달리는 도로로 나가는 일을 막기 위해 기획됐다.

또 고창군은 매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과 연계해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보행 안전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고창군 재난안전과장은 "앞으로 학교 주변 뿐 아니라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대로변 등에 현장조사를 통해 스마트폰 노면표지판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며 "스마트폰 때문에 주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습관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단풍아카데미 개최

수의사인 설채현 씨가 오는 27일 오후 2시 정읍 연지아트홀 공연장에서 '반려동물 문화'를 주제로 특강을 갖는다.

설채현 원장은 이날 반려동물 인공 천만시대에 걸맞은 올바른 펫케어 문화를 만들기 위해 반려동물의 이해와 교육방법 등을 안내한다.

특히 설원장은 실제 사례들을 위주로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을 통해 들려줄 예정이다.

설 원장은 SBS 동물농장 등 동물의 정신건강과 트레이닝 관련 동물 프로그램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건국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했으며 국내 수의사 최초로 미국 KPA에서 클리커 트레이너 자격증을 취득했다.

설 원장은 현재 그녀의동물병원 원장이자 동물행동교정사로도 활동 중이다. 이번 특강은 제7회 정읍 단풍아카데미 일정으로 마련됐다.

"정읍 단풍아카데미"는 시민들에게 사회 각 분야 저명인사의 전문지식과 삶의 지혜를 전달하는 강연 프로그램이다. 이는 시민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행복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특강은 11월까지 매월 무료로 실시된다.

한편 4월에는 재심사건 전문가이며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인 박준영 변호사가 '작은 억울함은 없다'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의 화려한 봄날 팡파레

벚꽃축제 이달 30일 시작... 차없는 거리 운영·야간 경관 조명 등 다채

화려한 정읍 봄날의 서막을 올리는 벚꽃축제가 이달 시작된다.

정읍시는 벚꽃 개화시기가 평년보다 빨라짐에 따라 '2019 정읍벚꽃축제'를 작년(4. 6.~4. 10.)보다 앞당겨 이달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벚꽃 개화에 영향을 주는 2월과 3월 상순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전년보다 4일에서 7일 정도 개화시기가 빨라졌다. 기상 관측업계에 따르면 올해 벚꽃은 올해 3월 23일 하중 24일, 경주, 28일, 서울 내달 3일에 개화가 시작된다.

유진심 시장은 "이처럼 전년보다 개화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관련 부서 실무자 협의 등을 거쳐 축제 일정을 앞당겼다"며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야간 경관 조명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마련에 최선을 다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더 많은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행사 주 무대는 정읍천변 어린이 축구장 일원이다. 정읍천 벚꽃로의 중심으로, 인근의 화사한 벚꽃과 어우러져 한층 아름다운 축제의 배경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화려한 정읍 봄날의 서막을 올리는 벚꽃축제가 이달 시작된다.

시는 올해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기존 5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하고 축제기간 정주교에서 정동교에 이르는 1.2km를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야간경관조명도 기존 초산교에서 정동교에 이르는 0.8km를 연지교에서 정동교 구간 2.8km로 연장한다.

또 봄밤을 밝힐 불꽃쇼도 펼치고 로맨틱 포토존과 먹거리와 농·특산 판매부스, 각종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특히 제23회 정읍예술제와 제

15회 자생화, 제8회 자생자 페스티벌과도 연계해 더 많은 상춘객들을 끌어 모으고, 정읍의 대표 봄 이벤트를 위한 위상을 다져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벚꽃축제의 주 무대인 정읍천 벚꽃로는 자연 친화형 하천인 정읍천(井川川) 상동~연지동 5km 구간으로, 해마다 봄이면 1,200여 그루의 벚꽃이 피어 장관을 이룬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국에서 주목받는 우수 공동체로 성장

정읍시공동체, 발길 줄이어... 태산풍류공동체 등 찾아 다채로운 프로그램 체험

정읍시공동체가 자립과 공동체성을 병행하는 우수사례로 전국에서 주목받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여러 지역에서 지역 내 우수 공동체를 찾아 방문하고 있다"며, "타지역 지자체와 중간지원조직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도 벤치마킹을 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순창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벤치마킹을 시작으로 안동시 맹개마을과 광주광역시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 진안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등 여러 지역에서 지역 내 우수 공동체를 찾았다.

이들 단체들은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에서 '우리가 꿈꾸는 세상' 마을과 교육청과 연계 방법, 프로그램 진행 노하우 등에 대해 배우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읍시공동체가 자립과 공동체성을 병행하는 우수사례로 전국에서 주목받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다.

이와 태산풍류공동체에서 선비 체험과 다례체험, 내장상동 송죽마을 떡만들기 체험, 신기마을 전통놀이 체험 등을 경험했다.

시 관계자는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부쩍 늘어난 벤치마킹

은 우리 공동체가 개별적인 활동에 그치지 않고 마을과 마을, 공동체와 공동체와의 연계는 물론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상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군민이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최선"

고창군, 주민불편 반영한 농어촌버스 일부 노선 후속 개선 시행

고창군 일부지역 농어촌버스 운행 시간과 노선이 오는 7일부터 조정된다.

고창군은 지난 2월 1일자 노선개편에 이어 지속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일부 노선의 후속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후속개편안 따르면 기존 노선폐지로 가장 큰 불편을 겪어 왔던 대산면에 영광방면 일부 운행노선이 신설된다.

오전 8시 '대산-해룡-영광'과 오후 2시20분 '대산-용두-영광-해룡'이 새롭게 운행된다. 고창에서 흥덕도 오후 7시20분 막차노선이 신설돼 지역 중·고생들의 귀가가 한결

편해질 전망이다.

앞서 군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인접 시·군, 운수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후속 개편안을 통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힘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의 환경변화와 교통수요에 맞춰 노선을 정비해 군민이 대중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변경 내용은 고창군 농어촌버스 운수업체인 (주)한한고속(☎063-564-3943)과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교통행정팀(☎063-560-241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장애인 전용 체육관 공모사업 선정

부안군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실시한 2019년 생활발달형 장애인 체육시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지자체 중 2곳을 선정했으며 전북에서는 부안군과 익산시가 선정됐다.

부안군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사업은 국비 30억원과 군비 28억원 등 총 58억원을 투입해 체육관과 부대시설, 장애인협회 사무실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 건립되면 부안 지역 5000여명의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그동안 생활체육서비스 등에서 소외돼 있던 부안지역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부안군의 오랜 숙원 사업인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의 실패가 풀렸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부안=김익식 기자

정읍시, 소규모 외식업 닥터 프로젝트사업 신청 받아

정읍시가 '2019~2020 정읍방문의 해'를 맞아 소규모 외식업소(일반음식점)를 대상으로 현장중심 맞춤형 경영개선 컨설팅을 추진한다.

이는 영업주의 자긍심을 높이고 음식 문화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외식업 닥터 프로젝트사업이다.

시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9개 분야)를 실시한다. 이후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경영 개선에 적합한 5개 업소를 선정한다.

조리·마케팅·인테리어·고객서비스 등 분야별 전문가가 4월부터 11월까지 이들 업소를 찾아가 경영 전반

에 걸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시는 이들 업소에게 지정증을 교부하고 표지판을 배부한다.

또 시 홈페이지 홍보와 각종 행사 시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달 5일부터 20일까지 정읍시보건소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컨설팅을 통해 소규모 외식업소들의 경쟁력을 강화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의회, 임시회 폐회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6일 본회의장에서 제262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15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해 나갈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 업무보고

를 받고 고창군수로부터 제출된 1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4건 등 총 19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5,837억에서 군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 용역 등 295억이 증액된 6,132억이 최종 확정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three bottles of wine on the left. On the right, there are several gift set options, each with a price and volume. The text includes a slogan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병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The bottom right corner has the brand name '부안강산 병주 Premium Odi Wine' and contact information: TEL: 063-584-8980, www.gangsanwine.com.